

# 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창원산업보건센터

글 창원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김혜정 차장



## 함께여서 할 수 있었던 의료봉사

2018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던 중 우리는 또 다른 의료봉사를 생각하게 됐다. 기존에 '따사모(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를 통한 연탄배달 봉사과 '적십자 빨래봉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었기에 기존과 다른 의료봉사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는 의견이 나왔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의료봉사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보자는 말도 있었다.

먼저 지역 행정복지센터는 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산호동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우선 검진 대상자를 60세 전후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종합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으로 정하고, 검사항목은 단순 일반건강진단이 아닌 혈액종합검사 항목으로 정했다. 검진 장소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출장 건강진단으로 진행했으며, 검진의 질을 생각하여 검진 대상자는 50여 명으로 정했다. 그렇게 2월 13일로 검진 날짜를 잡고, 추운 날씨에 검진을 오가는 도중에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고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날씨만큼 따스했던 시간

검진 당일엔 미세먼지도 없고, 따뜻한 날씨였다. 너무 춥거나 비가 와서 어르신들께서 검진 오시기에 불편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했던지라 직원들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라며 아침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검진 장소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는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죠?”라는 불안함도 자리했다.

버스를 주차한 뒤, 장비를 가지고 검진 장소인 행정복지센터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층과 4층에 대기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다. 검진 전날 미리 방문하여 테이블 세팅을 다 해 두었기에 준비해 간 장비만 설치하고 검진 후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차린 후 바로 검진을 시작했다.

검진은 ‘문진표 작성 및 접수 → 신체계측 → 소변, 혈액검사 → 진찰 → 간식 섭취 → 흉부 X-선 촬영(버스) → 귀가’의 순서로 진행했다. 검진에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각 부서 팀장님, 차장님, 센터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셨다.

## 지속가능한 의료봉사를 위해

검진 일주일 뒤에는 검진 장소에서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60세 이상의 어르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결과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기로 했다.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10여 명의 직원들이 최대한 넓은 간격을 두고 테이블을 세팅하여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고 복 받을 끼요! 근데, 아무 이상 없지요? 이거 해 놓고 잠을 못 잤다 아이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어르신 반응은 대부분 이랬다.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왔어요!”라는 말씀에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봉사는 아니었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움을 많이 표하셨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직원들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센터 인근에 있는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와도 협약하여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건 어떨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더불어 “봉사, 하면 좋죠! 하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내 몸과 시간을 남한테 어떻게 투자합니까?”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면, “봉사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66

봉사는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

99

